

## 28장. 두로에 대한 셋째 넷째 신탁, 시돈에 대신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예언

### 1. 셋째 신탁 - 멸망 예언(28:1-10)

두로에 대한 셋째 부분은 두로의 왕을 지목하면서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 하였다. 그는 자기의 지혜로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자랑하며 자기의 지혜가 다니엘보다 더 낫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의 손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 2. 넷째 신탁 - 멸망에 대한 애가 (28:11-19)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하여서 애가를 짓도록 하였다. 두로의 왕을 '완전한 인장'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각종 보석으로 비유하였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처럼 천상의 존재로 비유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그가 변성할 때에 교만하였고 갑자기 패망하게 되었다. 그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갑자기 패망하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두로의 이미지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에 녹아 들었다. 요한계시록 17-18장에서 묘사된 바벨론의 모습은 두로의 이미지와 통한다. 두로는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제국의 표상이다.

### 3. 시돈에 대한 심판 (28:20-24)

여섯째로 시돈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신다. 시돈에 대한 구체적인 죄목은 나오지 않는다. 아마 앞에서 나오는 죄목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 4.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28:25-26)

여섯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서 약속하신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멸망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도록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내려 주신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서 원래 약속하신 낙원을 이루면서 살 것이다.

자기의 부와 권력과 지혜를 자랑하던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훈과 위로를 얻으라고 짧지만 이러한 말씀을 심판의 말씀 중간에 내려 주셨다. 만대의 교회는 여기에서 참된 지혜와 능력과 부를 배워야 할 것이다.